

정보 윤리 소책자

Copyright © 2012
Izumi FUSE and Shigeto OKABE
Research Division of Media Education,
Information Initiative Center,
Hokkaido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컴퓨터에 몰래 잠입해 들어오는 스파이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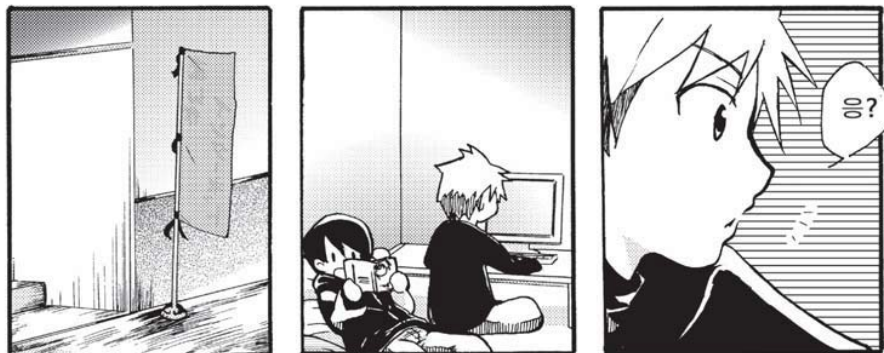


【목표와 포인트】

1. 스파이웨어 및 허위 안티 바이러스 이해.
 - 바이러스 백신을 가장한 악성 소프트웨어의 존재를 인식한다
 - 스파이웨어에 의한 스팸 메일 문제에 대해 생각한다.
2. 스파이웨어와 키로거 등에 의한 정보 유출에 주의한다.
 - 인터넷 카페 등에서 관리되지 않는 공용 컴퓨터를 사용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용어

스파이 웨어

개인적인 정보나 이용자의 컴퓨터의 움직임 등을 감시하고, 작성원에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어떤 소프트웨어의 인스톨 시, 함께 인스톨 될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정보가 의도치 않게 흘러 나가지는 것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위조백신 소프트웨어

문자 그대로, 가짜 바이러스 대책 사이트다. 바이러스에 감염하고 있는 취지의 메시지나 가짜 바이러스 검출 화면을 이용자의 PC 화면에 표시시켜, 이용자에게 대책을 위해서는 유상의 소프트웨어의 인스톨이 필요한 것을 강요한다. 일단, 인스톨해버리면,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하드 디스크의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도 있다. 감염 경로는, 메일의 첨부 파일을 열거나, 부정한 프로그램이 장치되어 있는 웹 사이트를 열람하는 것 등이 많다. 백신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 스팸 메일 등 의심스러운 메일은 열지 않는 것 등에 주의 하는 것이 좋다.

키로거

키보드로부터의 입력 정보를 감시해서 기록하는 것. 기록한 정보를 외부에 송신하는 것도 있다. 이용자 자신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인터넷 카페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PC에서는, 악의를 품고 설치 할 수가 있어, 비밀번호 등이 도난 당할 우려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지 명확하지 않은 PC에서는,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공용 PC

대학 PC도 여러분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PC지만 인터넷 카페와 같은 익명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관리 형태가 다르다. 대학 PC에서는 PC의 상태를 매번 초기화하거나, 바이러스 대책을 최신 버전으로 한 상태에서 PC를 이용한 ID와 이용한 PC의 이용 이력 등을 관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형법등의 개정

2011년, 정보처리의 고도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형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으로, 소위 컴퓨터바이러스에 관한 죄가 신설되고 있다.「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전자계산기에 있어서 실행의 동시에 발생될 목적으로」, 소위 컴퓨터바이러스를 작성, 제공 등을 했을 경우에는 죄가 된다.

스파이웨어

여기에서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스파이웨어에 감염한 예를 제시했다. 그러나, 스파이웨어는, 공용의 컴퓨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PC에 잠입할 가능성도 있다. 스파이웨어는 몰래 동작하기에 이용자는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다. 또, 어떤 정보가 외부에 유출 되었는지는 그 스파이웨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감염 되는 것인가 또 어떤 대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

스파이웨어의 감염 경로

- ① 무료 소프트웨어 등을 인스톨할 때에, 함께 인스톨된다.
- ② 악의 있는 웹 사이트를 열람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인스톨된다.
- ③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실행하는 것으로 인스톨된다.
- ④ 컴퓨터의 보안 취약점을 뚫어서 인스톨된다.

스파이웨어에 관한 대책 예시

- ① 스파이웨어 대책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 소프트웨어는 최신의 버전으로 갱신한다.
- ② 수상한 사이트나 메일, 화면 표시되는 수상한 메시지 등에 주의한다.
- ③ 컴퓨터에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컴퓨터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한다.
- ④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을 체크한다.

스파이웨어에 감염했을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 컴퓨터의 초기화가 필요하게 될 경우가 있다. 따라서, 상기와 함께, 필요한 데이터는 적절히 백업을 해두길 바란다.



위조백신 소프트웨어

리카(梨花)씨는 위조백신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해버린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이용자를 놀라게 하여 부주의하게 소프트웨어를 인스톨시켜버리는 수법이다. 독립 행정법인정보처리추진기구 보안 센터에 의하면 2012년에 들어와서 「위조백신 소프트웨어」형의 바이러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감염 수법은 취약점이 있는 PC에 대하여 웹 사이트 열람 시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타입이다. 취약점의 해소와 함께 중요한 데이터는 백업을 취하는 것을 유념 해둘 필요가 있다.

원클릭 청구

현재, 여러 가지 사기가 횡행하고 있지만, 이 항목에서는 원클릭 청구에 대해서 보충한다. 원클릭 청구는, 메일이나 웹 사이트에 있는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입회비용이나 열람료 등의 지불 의무가 생긴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사기다. 실제로는 입회 등의 의사가 없이 의도에 반하여 단순하게 클릭해버린 것만으로는, 「전자소비자계약법 (통칭:주)」의 보호 아래, 지불의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법이 교묘히 되어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이용 규약의 화면에서 동의를 시키는 것
- 처음에는 무료로 보이게 만들어 안심시키는 것
- 악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요금청구 화면을 빈번하게 표시하여, 심리적으로 공격하는 것
- ...등으로, 교묘하게 이용자를 올라미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용 규약화면에서 동의를 얻음으로써, 반드시 위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기에 충분히 주의할 것. 독립 행정법인정보처리추진기구 보안 센터에 게재되고 있는 이번 달의 호소 2012년2월은, 「스마트 폰이라도 원클릭 청구에 주의!」라는 주제다. 스마트 폰의 원클릭 청구의 구체적인 예로서, 바이러스에 감염하면 해당 스마트 폰의 전화번호나 메일 주소 등이 원클릭 청구 업자에게 자동 송신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악질성은 PC에서의 원클릭 청구만큼 올라가고 있다. 부주의하게 어플리케이션을 넣지 말고, 보안 대책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상세한 것은 아래URL을 참조※(2012년3월9일 열람).

주: 「전자소비자계약법」의 정식명칭은,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송납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